

평초 영산마을 열두달 자연놀이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MUDEUNGSAN NATIONAL PARK OFFICE

김성호의 영문회화





평창호수마을 영농조합법인

발행기관 평창 명품마을 영농조합법인,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광주환경운동연합
발행일 2022. 11. 10
글쓴이 공은주, 김동구, 박인애, 배효선, 신민정, 이경희, 임예서

CONTENTS

- 06 • 발간사
- 09 • 마을, 단체, 기관 소개
- 10 • 평촌마을 지도
- 13 • 평촌에서 놀아요
- 25 • 평촌에 살아요
- 37 • 평촌마을 열두 달 자연놀이
- 73 • 활동의 기록들
- 81 • 평촌에서의 하루 일정
- 93 • 발간 후기



발간사

반딧불이가 돌아오듯 사람들도 돌아오는 평촌마을로 만들겠습니다.

10여 년 전 반딧불이 복원 사업을 시작할 때, 헛된 일은 아닌지 물음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국립공원 무등산 명품마을에 걸맞게 다양한 생물들이 사는 마을로 가꾸어 보자며 많은 시간 토론과 학습을 했습니다. 반딧불이를 마을의 상징으로 만들고, 반딧불이가 사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늦여름이면 마을 곳곳에서 불을 밝히고 비행하는 반딧불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만 나타나도 환호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10년 동안 노력해 온 의미를 찾습니다. 자연을 되살리는 일, 반딧불이 복원사업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일상 단어가 되어버린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폭염을 완화시키기 위해 마을에서 건강한 자연생태를 보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활동은 작은 도랑이 모여 큰 강이 되듯이, 다른 작은 활동들과 모여 기후위기로부터 우리의 삶과 지구를 지켜낼 것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즐길 거리를 발굴해 준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선생님들, 발굴된 자원을 책으로 발간해 평촌의 자원을 알릴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국립공원 무등산사무소에 감사드립니다.

평촌마을과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 무등산사무소가 함께 했기에 더욱 의미있는 활동이었습니다. 평촌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매월 아이들과 함께 평촌마을을 찾은 광주환경운동연합, 마을의 숲과 하천, 들에 사는 생물들을 모니터링하고 그 변화를 알려주는 무등산사무소, 화학비료와 농약 대신 친환경농법으로 농사짓는 주민들의 활동이 평촌마을을 특별한 마을로 만들고 있습니다.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주민들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기후위기시대, 멸종의 시대를 멈추기 위한 활동과 결과들을 볼 수 있는 평촌마을에서는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태영 평촌명품마을 대표

평촌에서는 모든 것이 배움이자 놀이였습니다.

도심의 물길은 사라졌고, 숲길도 끊어졌습니다. 이제 실개천에서 다슬기를 찾고, 숲에서 밧줄 놀이를 하려면 도시를 벗어나 특별한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숲길에서 야생동물들의 흔적을 발견하고, 하천에 사는 파라미의 색깔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평촌마을은 무등산의 물길과 숲길로 연결되는 특별한 마을입니다.

주민들은 친환경농사를 짓고, 마을 쓰레기를 줍고, 하천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긴꼬리투구새우와 반딧불이가 나타났습니다. 야생종들의 출현이 늘어나자 찾는 사람들도 증가했습니다. 주민들은 무등산과 마을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자이자 진행자가 되었습니다.

『평촌마을 열두 달 자연놀이』는 광주환경운동연합이 2017년부터 5년간 진행해 온 <자연나들이>의 활동이 담겨 있습니다. 마을의 생태, 사회, 문화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은 마을의 역사와 공동체를 배우고, 자연놀이를 익히고 창조했습니다.

까르르 까르르 웃는 아이들, 바람을 가르듯 들판을 마음껏 달리는 아이들, 풀 한 포기, 나무 하나를 들여다 보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아이들.... 아이들의 표정은 즐거움과 행복감으로 가득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한 5년의 활동을 책으로 엮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내어 준 선생님들과 언제나 반갑게 맞아 준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촌마을을 찾는 이에게 활동의 길잡이로 잘 쓰이길 기대합니다.

박태규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발간사

무등산과 평촌, 상생(相生)의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름다움에 등급을 매길 수 없어 이름 붙었다는 무등산, 연간 280만 명의 탐방객을 맞이하는 무등산을 바라보면 오히려 산이 우리를 차별 없이 맞아주기에 무등(無等)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평촌마을 열두 달 자연놀이』에는 무등산처럼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평촌마을을 배경으로 국립공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온 상생의 시간이 담겨있습니다.

국립공원의 9번째 명품마을인 평촌은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처음 편입된 마을로서, 국립공원 지정의 실무자였던 저에겐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당시 현장에서 느꼈던 마을주민들의 뜨거운 목소리는 지금도 선명해, 명품마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평촌이 국립공원의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평촌마을은 이제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명품마을로 굳게 자리 잡았습니다. 날로 높아지는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특산품 판매는 물론 도예공방, 반딧불 체험과 같은 다양한 마을 프로그램을 자체운영하며 명품마을다운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평촌과 무등’을 살펴보면 평등이라는 말을 찾을 수 있는데, 마을주민 서로는 물론 방문하는 사람들까지도 차별 없이 대하는 평촌마을을 잘 나타내는 말 같습니다. 이런 평촌의 모습들은 국립공원 명품마을들의 모범이 됨과 동시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바라는 다른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수정병풍’은 무등산 정상부에 위치한 서석대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눈 덮인 서석대 위로 햇살이 비추면, 돌기둥들은 아름다운 수정처럼 찬란한 빛을 냅니다. 국립공원과 평촌마을이 서석대와 햇살처럼 서로를 빛내는 상생의 동행을 이어나가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명품마을과 지역상생을 위해 고생하신 많은 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남태한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소장



http://gj.ekfem.or.kr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전화 : 062-514-2470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삶터, 안전하고 평화로운 오늘과 내일을 만들어 가는 녹색의 길을 시민과 함께 만듭니다. 1989년 3월 17일에 환경오염과 공해, 그리고 핵을 추방하여 인간과 자연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창립, '환경은 생명이다'는 가치를 중심으로 활동을 펼쳐 오고 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도시의 하천과 숲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탈핵, 탈석탄운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실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1회용품 없는 도시, 걸을 수 있는 도시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http://www.bandivill.net
광주광역시 북구 평촌길15(충효동 162-1) 전화: 062 266 2287

무등산 북쪽 자락에 자리를 잡은 '평촌(坪村)마을'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담양 소재원과 이웃합니다. 평촌마을은 동림, 우성, 담안, 닭피라는 4개의 마을로 형성된 농촌마을로 국립공원 무등산의 명품마을이자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관광 마을입니다.

마을 곳곳에는 반딧불이와 수달, 남생이 등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평촌마을은 예로부터 분청사기를 만든 지역으로 전통을 이어가는 '평촌도예공간' 있으며, 마을 길목에는 '무돌길쉼터'와 '반디 민박'이 있어 마을을 지나는 사람들과 무등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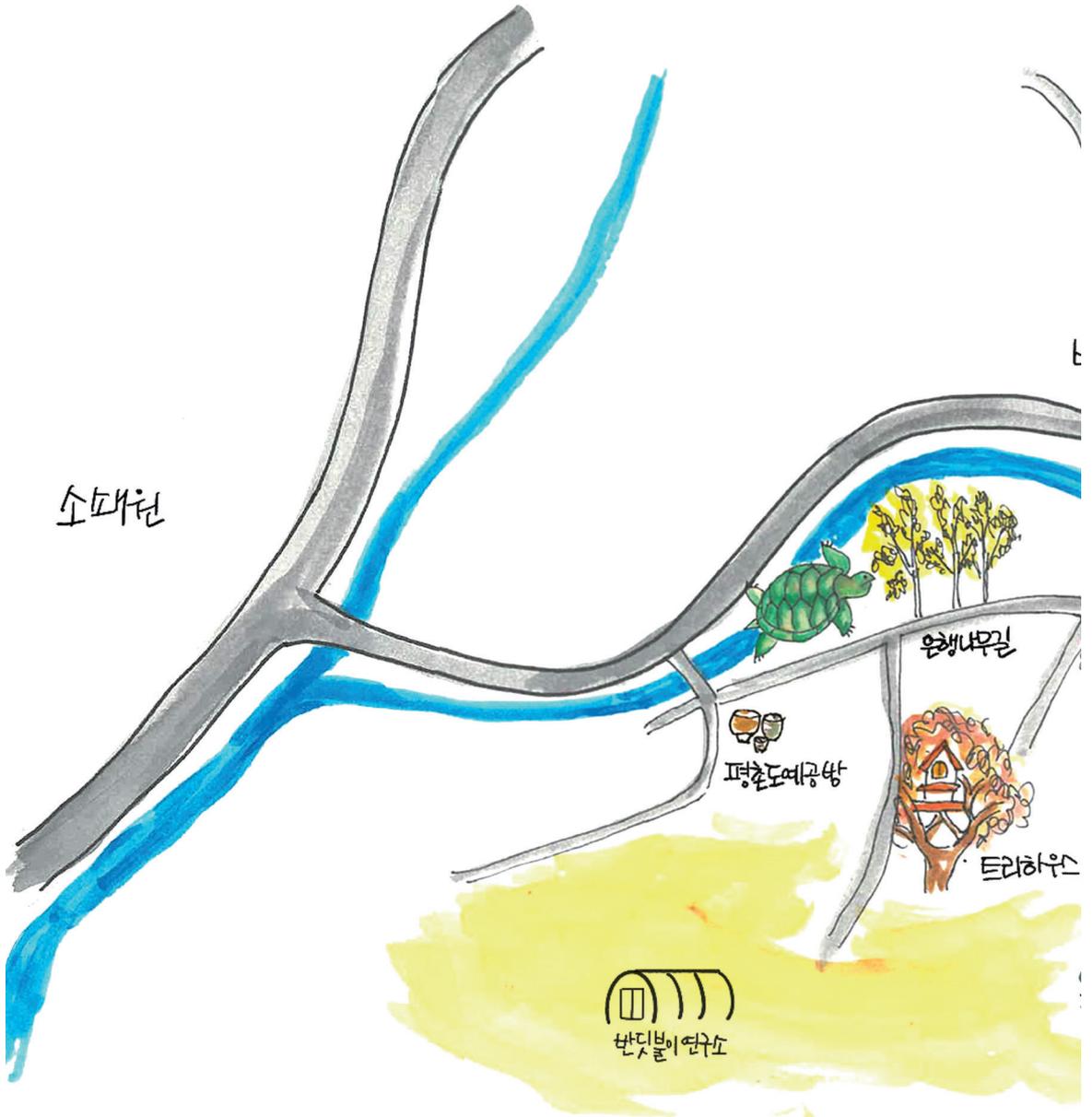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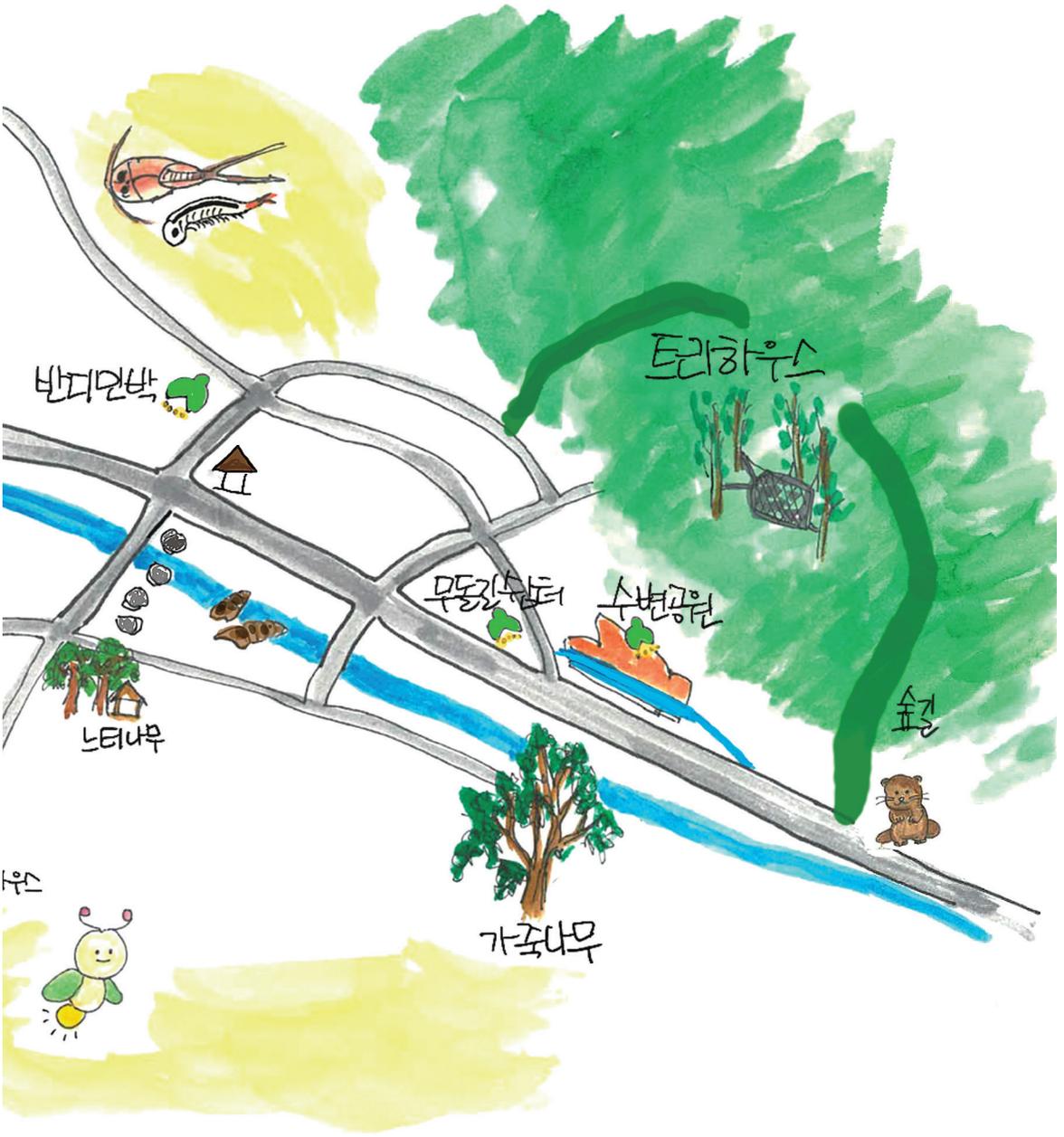
https://www.knps.or.kr/ 광주광역시 동구 동산길 7번길 5 대표전화 : 062-227-1187

무등산국립공원은 도심의 녹색허파 역할을 하는 자연공원입니다. 무등산은 2013년 3월 4일 국내 21번째로 지정된 국립공원입니다. 최고봉인 천왕봉을 중심으로 서석대·입석대·광석대 등 수직 절리상의 암석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봄에는 철쭉과 진달래, 여름에는 물봉선과 산수국, 가을에는 단풍과 억새, 겨울에는 설경 등 사계절이 뚜렷하고 생태경관이 우수한 곳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비할데 없이 높고 큰 산' 또는 '등급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고귀한 산'이라는 의미의 무등산은 광주라는 대도시의 녹색허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연 휴식처로 크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평촌마을 지도





반디민박

드림하우스

무등산

수변공원

노티나무

가죽나무

숲길

우





평촌에서 놀아요.

평촌마을 놀이공간



숲 놀이터(무등산 평촌 생태숲)

‘무돌길 쉼터’에서 반디누리길을 따라 5분 정도 풍암정 방향으로 건다 보면 왼편에 수달 3마리가 털조장나무를 들고 있는 입구가 나온다. 이곳이 숲 놀이터 입구. 여기에서 숲속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7~8분 정도 들어가면 놀이와 쉼을 할 수 있는 밧줄 놀이터와 해먹들이 보인다. 이곳은 마을 주민들과 충효분교 학부모들이 2016년 조성했으며, 지금까지 매년 더 흥미로운 밧줄 놀이를 위해 놀이 공간을 덧붙여 나가고 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밧줄 놀이와 누워서 하늘을 보며 멍 때리기 좋은 해먹이 여러 개 있다. 평모뜰과 광주호의 넓은 경관과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다.



무돌길 쉼터

마을의 랜드마크. 주민들과 탐방객이 이용하는 이곳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쉼터이다. 병튀기, 두부, 부각 등을 만드는 주민의 공동작업장이자, 특산물 판매장이고, 탐방객들의 교육장, 식당도 된다.

10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춘 평촌마을의 복합공간이다.

무돌길 쉼터 옆에는 주차장과 시내버스가 회차하는 곳이 넓게 만들어져 있다.

수변공원

무돌길 십터 옆 물이 흐르는 곳인 이곳은 수변공원으로 불린다. 평촌마을은 무등산 자락이라 물이 풍부하다. 마을 옆 수로로 흘러가는 물에 발을 담글 수 있도록 작은 공원을 만들었다. 흐르는 물은 발목을 간지럽혀 웃음을 만들어준다. 물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 설치한 물막이를 이용하면 여름철에는 작은 물놀이장이 생긴다.





트리하우스

공 씨 아줌마 집 마당에 있는 팽나무에 만들어진 트리하우스

공 씨 아줌마와 충효분교 학부모들이 2015년 아이들에게 기억에 남는 추억을 선물 하려고 만들었다. 무려 6개월에 걸쳐 만들어진 트리하우스는 아버들이 함께 설계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아빠와 아이들의 캠핑, 시인 만나기, 별 보며 동화책 읽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트리하우스에 오르면 어느새 모험이 가득한 동화책의 주인공이 된 듯하다.

트리하우스를 이용할 때는 사전에 방문 및 사용 문의가 필요하다. 사용 문의는 무돌길 쉼터에서 공씨 아줌마를 찾으면 된다.



평촌 도예 공방

500년 전부터 분청사기가 만들어진 무등산 자락의 평촌마을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운영하는 평촌 도예 공방이 있다. 도예체험장과 전시장, 판매장, 장작가마가 있다. 1~2개월에 한 번씩 장작가마에 불을 넣는 날에는 잔불을 이용한 구이 잔치가 열린다. 평촌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 담양 주민들도 함께 어울리는 잔치다.



분청사기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에 유행했던 서민들의 그릇으로 유약을 발라 3가지 색깔이 나는데, 칼륨이 많은 흙에 백토(白土)로 표면을 분장한 다음 유약을 입혀서 구운 자기이다.

반딧불이 연구소

여름이면 마을 곳곳에서 불을 밝히며 비행하는 '반딧불이'를 연구하고 키우는 곳이다. 평촌마을에 사는 늦반딧불이는 9월경 해가 진 이후 논두렁과 농로를 따라 걸으면서 볼 수 있다.

주민들은 매년 애벌레와 성충이 몇 마리 정도 사는지, 어디에 주로 나타나는지 모니터링을 하며, 더 많은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9월, 늦반딧불이가 짝짓기를 위해 비행을 많이 하는 날에는 반딧불이 가족 캠프가 열린다.





평촌 반디 민박

평촌마을에서 숙박할 수 있는 곳. 평촌마을의 밤은 낮보다 더 흥미롭다. 밤하늘의 별과 함께 '반디민박' 옆으로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밤마실을 갈 수도 있고, 아침을 맞는 동식물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다.

평촌 반디민박은 1층은 경로당, 2층은 방 3개가 있어 가족 단위나 단체로 이용할 수 있다. 2층 테라스에서는 평모뜰과 연방죽, 마을 곳곳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3~5명이 잘 수 있는 방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마을 냇가 - 풍암천

무등산 원효계곡의 물이 흐르는 풍암천. 수달과 새들의 쉼터이자 먹이를 구하는 곳이다. 풍암천에는 남생이 등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지만 잡으면 안 된다. 다슬기는 반딧불이의 먹이로, 다슬기가 사라지면 반딧불이도 사라진다.

풍암천 징검다리를 건너며 놀 수도 있고, 바로 옆에 여러 개의 정자가 있어 쉴 수 있다. 정자 옆, 큰 느티나무 2그루는 여름철 시원한 그늘과 바람을 만들어준다. 아주 옛날 풍암천 주변은 화순과 담양 등 인근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터였다고 한다.



평모뜰 <긴꼬리투구새우가 사는 논>

평촌마을에서 광주호 호수생태원까지 펼쳐진 넓은 뜰의 이름은 평모뜰이다.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구불구불한 논둑길과 경사를 따라 크기가 제각각인 다랭이 논들은 평촌마을의 자랑이다. 벼농사를 지으며 사계절 다양한 풍경이 연출된다. 친환경 우렁이 농법으로 농사를 짓자 논에는 긴꼬리투구새우가 나타났다. 3억 5천만 년 전, 화석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긴꼬리투구새우는 '화석 생물'로 2012년까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었다가, 사람들의 관심으로 환경이 회복되면서 개체 수가 증가하여 멸종위기종 지정이 해제되었다.



평촌 반디마을 누리길

약 6.5km!

우리 선조들이 의병활동을 하면서 다녔던 **의병길**과 분청사기를 만들었던 유적과 가사문화권으로 연결 되는 **역사길**, 반딧불이 집단 서식지를 연계하여 역사적이고 생태적인 탐방로를 조성하였다.

반디 누리길 <마을에서 풍암정까지>

평촌 도예 공방에서 풍암정까지 연결된 순환형 보행길로 마을의 여러 공간을 둘러 보며 걸을 수 있다. 반디 누리길에서 무돌길과 평모들로 들어서면 숲과 들뜰으로 연결 된다.

전체 길이가 6.5km인 반디 누리길은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다. 탐방객들이 마을 곳곳을 갈 수 있도록 연결한 이 길은 주민들이 제안하여 만들어졌다. 걷다 보면 마을의 역사와 문화, 생태를 두루 만날 수 있다.





평촌에 살아요.

평촌에서 만나는 생물들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는 자두나무

무돌길 십터 바로 앞집 마당에는 50살이 넘는 자두나무가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다. 흔히 볼 수 없는 자두꽃이 피는 봄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화사한 하얀 자두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곤 한다.

봄에는 꽃, 여름에는 열매, 가을이면 단풍 그리고 겨울이면 무성한 나뭇가지가 돌담길과 물길에 어울려 평촌마을을 대표하는 풍경이 된다.

자두나무에서 시작해 돌담길을 따라 골목길로 들어서면 담장 너머 누군가의 마당에 자라고 있는 나무들의 이름을 맞추며 걸어보는 것을 추천!!



많은 것들을 내어주는 팽나무, 느티나무



평촌마을에는 유독 커다란 느티나무와 팽나무가 많다. 풍암천 2그루, 우성 마을 1그루, 동림 마을 1그루, 동림 뒤쪽에 1그루 등 마을 곳곳에서 커다란 나무를 만날 수 있다. 나무 그늘 밑 정자에는 바람도 머문다. 나무의 가지에서 쉬는 새들의 노랫소리는 평촌마을을 찾는 이들에게 새들이 주는 선물이다.

평촌마을에서 충효분교로 가는 길에는 '홍정자'라 불리는 나무, 환벽당 가는 길 오른쪽에는 '진정자'라 불리는 나무가 있다. 정자는 없지만, 느티나무가 주는 그늘에서 쉰다는 의미로 지금까지 불리고 있다.



담안 돌담길 은행나무

평촌교에서 트리하우스로 가는 길가에 심어진 수많은 은행나무
가을에 마을을 노랗게 물들인다.

잘 익은 은행은 줍는 사람이 주인이지만 바람에 떨어지는 은행에
옷이 물들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담안마을 가족나무

담안마을에 있는 가족나무는 10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키 큰 가족나무에는 새집이 많이 지어져 있어 새들의 아파트로 활용되고 있다. 가족나무는 나무껍질(나무의 껍질)이 예뻐서 공예품으로 쓰인다. 가족나무 잎으로 부각을 만들어 먹는다고 하는데, 부각 중에 최고로 친다고 한다.

마을 주민인 김준석 아저씨는 마을에 가족나무 100그루를 심어 가족나무 숲을 만들어가고 있다.



털조장나무

무등산의 깃대종인 '털조장나무'는 마을 뒷산인 금산 중턱에서 만날 수 있다. 겨울을 지나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털조장나무는 생강나무랑 비슷한 모양새다.

털조장나무는 세계적으로는 일본과 한국에만 분포하는 희귀식물로 우리나라 무등산, 조계산, 강천산 일대에서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털조장나무는 경사가 급하고 바위가 많은 지역에 자생하기 때문에 털조장나무를 보러 갈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트리하우스가 있는 공 씨 아줌마네 마당에서 3월이면 꽃이 핀 털조장나무를 쉽게 볼 수 있다.

애반딧불이와 늦반딧불이

5월 ~ 6월 호수생태원에서는 애반딧불이를, 7월 말 ~ 9월 중순 평촌마을에서는 늦반딧불이를 볼 수 있다. 애반딧불이는 늦반딧불이에 비해 작고 불빛이 희미하다.

더 많은 반딧불이가 살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은 친환경 농법으로 논농사를 짓고 하천을 건강하게 가꾸어가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애벌레



늦반딧불이

다슬기

마을 곳곳에 물이 흐르는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
2010년 마을 전체가 친환경 농법으로 전환한 후로 다슬기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반딧불이도 다시 나타났다.



긴꼬리투구새우와 풍년새우

논에 모를 심은 후 보이는 긴꼬리투구새우는 풍년새우를 먹고산다. 풍년새우가 많은 논에는 긴꼬리투구새우도 많다. 하늘색과 초록색의 몸통에 주황색의 꼬리를 가진 풍년새우는 긴꼬리투구새우와 함께 보인다. 긴꼬리투구새우는 논에 모를 심은 후 2주째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40일 정도 논에서 살면서 15번 정도의 탈피를 반복하는데, 하루에 한 번 탈피할 정도로 성장의 속도가 빠르다고 한다. 15~20mm의 크기인 풍년새우가 많으면 그해는 풍년이 든다는 말이 있다.



긴꼬리투구새우



풍년새우

수달

늦은 오후, 어스름할 때 풍암천에는 먹이를 찾아 나선 수달이 간혹 보인다. 쉽게 수달을 볼 수 없지만 풍암천의 넓은 바위 위에는 수달이 먹다 남긴 흔적들과 똥을 볼 수 있다. 털조장나무와 함께 무등산국립공원의 깃대종인 수달의 활동 반경과 개체 수 조사를 위해 국립공원공단에서는 모니터링을 한다.

움직이는 수달을 보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대신 마을 곳곳에 벽화와 조형물, 포토존에서 수달을 쉽게 볼 수 있다.



출처: freepik



출처: 국립공원공단 생물종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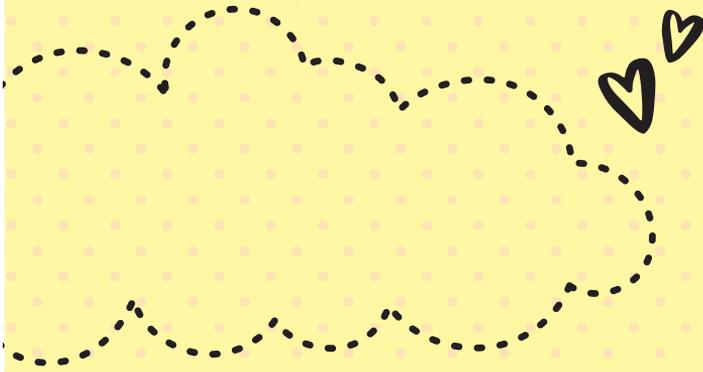
무당개구리

숲속 웅덩이에서 무당개구리는 쉽게 볼 수 있다. 검은 점박이가 박힌 주황색 혹은 초록색 배를 가지고 있어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숲속 둠벙(표 : 웅덩이)은 집단 서식지이다. 무당개구리를 비롯한 참개구리, 청개구리 등 개구리가 많은 평촌마을에는 뱀들도 많으니 숲길을 걸을 때 발밑을 조심해야 한다.



남생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천연기념물인 남생이를 평촌에서는 가끔 농로길에서 볼 수 있다. 도로까지 나온 남생이를 발견하면 하천에 넣어주길 부탁한다. 남생이는 번식기인 6월 풍암천 근처의 수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물살이 약한 곳에서 기다리면 숨을 쉬기 위해 나오는 남생이를 볼 수 있다. 가끔 바위에서 쉬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남생이는 물살이 빠르지 않은 곳에서 더 쉽게 볼 수 있다.





평촌에서는 상상하고, 몸을 움직이면 놀이가 된다.
놀이는 여럿이 함께 할 때 더욱 재미있다.

마을 탐험대, 보물을 찾아라!

마을 이곳 저곳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우리만의 언어로 지도를 그리고, 숨겨진 보물을 찾는 활동이다. 마을 공간과 자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친밀감을 형성하며 주변 환경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활동 방법

1. 마을 탐험 구간을 모둠별로 나눈다.
※준비물 : (모둠별) 나침반, 마을 지도, 지도 그릴 종이, 유성펜 등
2.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자연물이나 인공물을 중심으로 마을을 탐색한다.
3. 길과 암호, 설명 등으로 보물 위치를 표시한 그림지도를 그린다.
4. 다른 모둠과 그림지도를 바꿔서 숨겨진 보물을 찾는다.

활동 Tip

- 활동 전에 지도교사는 반드시 마을 길, 안전 요소 등을 확인한다.
- 학생들에게 지도 그리는 방법을 알려준다.
- 자연물(나무의 수형, 그림자 등)을 통해 방향이나 길을 찾을 수 있다.



연결놀이

눈 감고 마을 길 걷기

눈을 감고 친구의 안내(말로 설명하거나 손잡아 주기)에 따라 마을 길을 걷는다. 친구와의 친밀감과 신뢰를 높이고, 바람 소리, 새소리와 따사로운 햇살까지 더 뚜렷하게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보물꼭지 찾기

아이들이 마을 곳곳에 숨겨 둔 보물 꼭지(상품 또는 수수께끼, 모둠별 미션 등)를 다른 친구들이 찾도록 하는 보물찾기 놀이이다. 보물을 표시한 보물지도가 제공된다.



미션, 한술밥 만들기

보물 꼭지에 한술밥 재료들이 적혀 있다. 모둠별로 찾은 먹거리 재료만으로 한술밥을 만들어 먹는다. 먹거리의 소중함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다.



평촌에서 살아남기, 불을 만들어요!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에너지 자원인 불을 스스로 피워 음식을 만들어봄으로써 도전 의식과 성취감, 생존력을 높이는 활동이다.



활동 방법

1. 모둠별로 불을 만들기 위한 조건, 준비물, 방법 등을 이야기한다.
※ 준비물 : (모듬별) 스케치북, 유성펜, 다양한 불 피우기 도구(파이어 스틸, 돋보기, 페트병, 은박지, 건전지, 비닐봉지 등)
2. 마을을 돌며 빨감으로 쓸 낙엽, 나뭇가지 등을 모은다.
3. 다양한 방법으로 불 피우기에 도전한다.
4. 불을 안전하게 끄고 주변을 정리한 후 소감을 나눈다.

활동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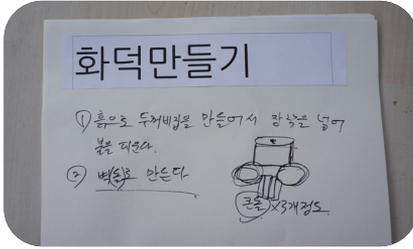
- 사전에 마을 주민과 협의를 통해 안전한 장소에서 활동한다.
- 활동 전에 불 피우는 방법, 필요한 재료, 불 끄는 방법 등을 모듬별로 정리한다.
- 화재 안전 지도를 철저히 하고 소화 도구를 반드시 준비한다.



연결놀이

화덕 만들기

안전하게 불을 잘 피울 수 있는 화덕의 모양, 크기 등을 구상한 후 주변의 자연물(돌, 흙 등)을 이용하여 모둠별 창의적인 화덕을 만든다.



음식 조리하기

모둠별로 직접 피워 낸 불로 밥을 짓거나 감자, 떡, 굴 등을 구워 먹는다. 간단한 조리 활동을 통해 불의 활용을 체험할 수 있다.



로켓 스토브, 태양 에너지 활용하기

로켓 스토브, 태양열 조리기 등으로 음식을 만들거나 돋보기로 햇빛 에너지를 모아 불 그림 그리기 활동을 해 보자. 적정 기술과 재생 에너지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다.



물놀이는 언제나 즐거워!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자연 하천에서 신나게 놀면서 아름다운 물길을 마음에 담고 물속 생물을 관찰해 보자. 자연과 교감하며 생태감수성을 높임으로써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물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활동 방법

1. 물놀이 수칙을 확인하고 준비운동을 한다.
2. 친구들과 어울려 신나게 안전하게 물놀이(물싸움, 대나무 물총놀이, 수제비 뜨기 등)를 한다.
3. 풍암천의 자연환경(물길, 돌의 색깔, 모양 등)을 살펴보거나 물속 생물을 채집하여 관찰한다.
4. 채집한 물속 생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주변 정리 후 소감을 나눈다.

활동 Tip

- 사전에 마을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안전한 물놀이 장소에서 활동한다.
- 물놀이 전에 지켜야 할 안전 사항들을 퀴즈 등을 통해 익힌다.
- 물속 생물들은 조심스레 관찰하고 반드시 자연으로 되돌려 보낸다.



연결놀이

물속 생물 알아보기

생물 카드나 도감을 이용해서 카드 뒤집기, 생물 이름 알아맞히기 등 재미있는 놀이를 하면서 물속 생물들과 친해져 보자.



다양한 방법으로 생물 채집하기

뜯채, 족대, 피리통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물속 생물을 채집한다. 주변의 다양한 물건을 활용하거나 물고기 맨손 잡기에 도전해 보는 것도 OK!



물속 생물 관찰하기

돋보기나 루페 등을 활용해 채집한 물속 생물을 관찰한다. 작은 생물은 붓을 이용해 하안 접시나 종이에 조심스럽게 옮겨 관찰하며 생명을 소중히 다루도록 한다.



반딧불이를 벗 삼아 달빛 산책!

맑은 물,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진 평촌마을에는 반딧불이가 산다. 늦은 여름 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달빛 아래 반딧불이를 찾아 여행을 떠나보자.



활동 방법

1. 늦은 오후에 마을 이동과 산책할 때 필요한 주의사항을 확인한다.
※ 준비물 : 손전등, 곤충 채집통, 채집망
2. 정해진 동선에 따라 불빛을 최소화하여 이동한다.
3. 주변을 세심히 살펴 반딧불이를 찾는다.
4. 조심스럽게 채집하고 관찰한 후 자연으로 돌려보낸다.

활동 Tip

- 사전에 마을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관찰 날짜 및 동선, 주의사항을 확인한다.
- 활동 전에 반딧불이의 서식과 한살이에 대해 미리 알아보면 좋다.
- 어두운 만큼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하는 가족 단위 활동이 효과적이다.



연결놀이

반딧불이 알아보기

영화를 보거나 마을 전문가, 무등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해설사 등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반딧불이에 대해 알아본다.



반딧불이의 먹이를 찾아서

반딧불이의 서식을 위해 마을 주민들은 다슬기를 키우고 보호하고 있다. 마을 앞 풍암천에서 반딧불이를 찾아 생태계 먹이사슬을 알아보자.



반딧불이 연구소 탐방

늦반딧불이의 서식을 연구하고 키우는 반딧불이 연구소를 탐방하며 반딧불이의 한살이를 알아보고 관찰한다.



우리만의 아지트, 트리하우스!

어른들은 모르는 아이들만의 작은 공간, 나무 위의 집은 아이들에게는 꿈이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드리우는 트리하우스 안에서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누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본다.



활동 방법

1. 트리하우스에 올라 마을 풍경을 살펴본다.
2. 트리하우스에서 할 수 있는 활동(책 읽기, 멍 때리기, 보드게임, 수다 등)을 찾아 친구들과 함께한다.
3. 나만의 트리하우스를 상상해 본다.
4. 활동 장소를 정리한 후 소감을 나눈다.

활동 Tip

- 마을에 트리하우스를 만들게 된 이유와 만든 방법을 공유한다.
- 트리하우스는 개인 집 마당에 있으므로 활동 전에 허락을 받는다.
-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소중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연결놀이

나무 타기

튼튼한 나무 위에 올라앉아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눠 보자. 시원하고 맑은 공기를 실컷 마실 수 있다.



해먹 타고 놀기

커다란 팽나무에 묶인 해먹을 이용해 그네도 타고, 애벌레도 되어 보며 나뭇잎들 사이로 멋진 하늘도 볼 수 있다.



트리하우스 앞마당에서 놀기

친구들과 함께 넓은 앞마당에서 공기놀이, 비석치기, 림보 등 하고 싶은 놀이를 마음껏 할 수 있다. 건강한 상상력과 재미,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봄꽃 찾아 화전놀이!

진달래, 유채 등 먹을 수 있는 풀꽃을 알아보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채취한 봄꽃으로 화전을 만들어보자. 관찰력뿐 아니라 자연의 향기, 색감 등을 느끼며 생태 감수성도 쑥쑥 키울 수 있다.



활동 방법

1.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풀꽃을 찾는다.
2. 꼭 필요한 만큼만 채취하여 살짝 씻는다.
3. 묽은 찹쌀 반죽을 만들고 소금 간을 하여 전을 부친다.
※준비물 : (모듬별) 찹쌀가루, 소금, 프라이팬, 기름 등
4. 완전히 익기 전에 채취한 풀꽃을 올려 장식한다.



활동 Tip

- 먹을 수 있는 풀꽃을 꼭 확인한다.
-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자연에 감사하며 풀꽃은 필요한 만큼만 채취한다.
- 가열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연결놀이



봄꽃 관찰하기

개나리, 진달래, 제비꽃 등 마을에 있는 봄꽃들을 관찰하다 보면 아이들은 각각의 꽃들이 갖는 특징뿐 아니라 봄꽃들의 공통점까지 스스로 깨치곤 한다.



꽃과 함께 찰칵!

아름다운 꽃 속에서 활짝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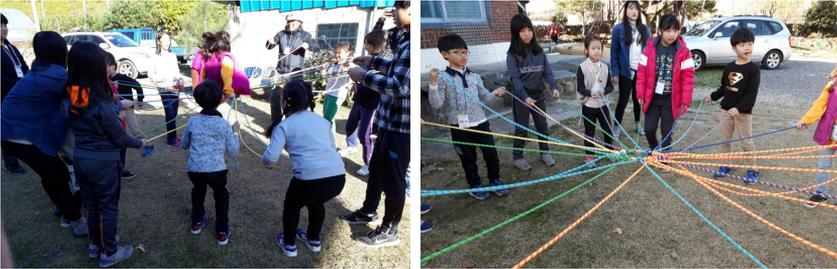
도둑풀을 찾아라

길이 아닌 곳에 들어가면 어김없이 옷자락에 붙어오는 풀의 씨앗. 일명 도둑풀. 동물들의 털에 붙어 이동하기 쉽도록 씨앗 끝에 갈고리 모양이 있는 풀들을 찾아본다.



햇님그네 밧줄 놀이

밧줄 놀이는 평촌마을과 숲, 들에서 뛰는 활동 중 가장 인기가 있는 놀이다. 특히 밧줄로 만든 햇님그네는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놀이로 몸의 민첩성, 용기, 지구력, 힘, 균형 감각, 근육 기관을 발달시킨다.



활동 방법

- 1) 기본 매듭법(걸매듭, 맞매듭 등)을 배운다.
- 2) 아이들의 엉덩이가 빠지지 않는 크기로 밧줄을 이용해 가운데 링(또는 슬링 사용)을 만든다.
- 3) 가운데 링에 두 줄 걸매듭으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줄을 맨다.
- 4) 순서대로 한 명씩 가운데 링 위에 앉힌 다음 나머지 참여자들은 구호에 맞춰 일정한 높이로 줄을 당겨 가운데 앉은 사람을 들어 올린다.
- 5) 줄을 위, 아래로 가볍게 흔들어 준 후 천천히 내린다. 링 위에 앉은 사람이 내릴 때 까지 절대로 줄을 놓지 않도록 한다.

활동 Tip

- 무서움을 타는 아이들이 있다면 낮은 높이로 그네를 태우도록 한다.
- 몸무게로 상처를 받는 아이가 없도록 주의한다.
- 햇님그네 밧줄 놀이는 8~12명 정도의 아이들이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다.



연결놀이

밧줄 매듭법 배우기

밧줄 놀이를 위해서는 안전한 매듭법(움매듭, 걸매듭, 8자매듭 등)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매듭법은 운동화 끈을 묶을 때 등 유용하게 사용될 때가 많다.



밧줄 놀이터

평촌 생태숲의 밧줄 놀이터에는 해먹과 여러 형태의 그네, 버마다리 등이 설치되어 있다. 버마다리를 통과하면서 가위바위보를 하기도 하고 그물 해먹에서 내 집 찾기 놀이도 할 수 있다.



너만 밀어

밧줄로 함께 묶인 공동체 놀이로 다 같이 힘을 모아야 성공하는 놀이다. 호흡이 착착 맞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앉았다 일어서기, 세모나 네모 모양 만들기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약이 되는 풀, 독이 되는 풀

평촌마을의 골목길이나 농로길, 들판 곳곳은 초록색의 풀들이 자란다. 애기똥풀, 민들레, 질경이, 냉이, 쑥, 팽이밥, 썸바귀...계절에 따라 길가에서 쉽게 만나는 풀들을 찾아보고 생김새, 냄새, 맛 등 오감을 이용해 탐색한다. 먹을 수 있는 풀들은 맛을 보아도 좋다.



활동 방법

1. 풀들을 만나기 위해 눈높이를 낮추며 걷는다.
2. 먹을 수 있는 풀, 약이 되는 풀을 찾는다.
3. 눈으로 자세히 살피고, 손으로 만져보고, 코로 냄새도 맡는다.
4. 교사의 안내에 따라 먹을 수 있는 풀을 뜯어 먹어본다.
5. 쓴맛, 신맛, 단맛 등 맛을 이야기한다.

“애들아 OO 풀은 맛이 써, 썸바귀”

활동 Tip

- 마을 주민들의 밭에는 들어가지 않게 주의한다.
- 아무 풀이나 먹지 않도록 지도한다.
- 풀과 같이 살고 있는 곤충도 관찰한다.
- 줄기와 뿌리는 맛을 보는 데 필요한 만큼만 조심스럽게 채취한다.



연결놀이

애기똥풀로 내 몸에 그리는 그림

줄기를 뜯었을 때 나오는 애기똥 색의 노란 즙액을 이용해 손바닥이나 팔에 그림을 그린다. 노란 즙액은 벌레에 물렸을 때 바르면 가렵지 않다. 애기똥풀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풀의 특성을 함께 이야기한다.



풀 씨름

길가에 자라고 있는 풀들을 이용해 풀씨름을 한다. 잎이 넓다고 해서 질긴 것이 아니고, 색깔이 진하다고 질긴 것이 아니다. 풀 씨름은 역시 대박야 안다.



질경이 제기차기

질경이의 큰 잎 10장을 뿌리 근처까지 뜯은 후 잎맥을 5cm 정도 까서 벗기면 실같은 것이 남는다. 이것을 묶으면 질경이 제기가 만들어진다. 풀로 만든 제기로 누가 누가 많이 차는지 내기를 해본다.



가을 논 짚풀놀이

계절마다 변화하는 평모들. 가을 추수를 끝낸 후 벼짚이 있는 논은 어떤 놀이
나 가능한 안전한 놀이터이다. 벼짚으로 공을 만들어 던져도, 벼짚으로 줄다리
기를 하다 넘어져도 꼭신해서 괜찮다. 벼짚을 이용한 생활용품을 만들며, 옛
어른들의 생활 속 지혜도 배울 수 있다.



활동 방법

- 1) 벼짚이 있는 논을 찾거나 마을 주민들에게 벼짚을 얻는다.
- 2) 벼의 한 해 살이와 벼짚의 다양한 활용방법을 알아본다.
- 3) 벼짚을 활용한 놀이계획을 상상한다.
- 4)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 방법으로 즐겁게 논다.
- 5) 마음껏 논 다음에는 주변 정리는 필수!

활동 Tip

- 사전에 허락을 구한 논을 활용한다.
- 벼짚을 이용한 놀이는 안전하다.
- 벼짚으로 집을 지어 옛 생활 체험이나 나만의 아지트를 만들 수도 있다.

연결놀이



벼짚 인형 만들기

벼짚의 줄기와 부드러운 잎을 이용해 모으고 구부리고 묶어서 인형을 만든다. 얼굴에는 매직이나 사인펜을 이용해 눈, 코, 입을 그려주면 더 좋다.



새끼줄 꼬기

벼짚을 가지런히 모아 오른손과 왼손에 잡고, 돌려가며 좌우를 바꾸어가면 새끼줄이 만들어진다. 각자 만든 새끼줄을 모으면 그것으로 줄넘기를 할 수 있고, 줄다리기 줄도 될 수 있다.



벼짚으로 떡 구워 먹기

인형을 만들거나 새끼줄을 꼬고 남은 모든 지푸라기를 모아서 쪄볼 떡 구이를 한다. 화덕 주변에 있는 돌이나 항아리를 이용해 주변에 불이 퍼지는 것을 막는다.



겨울 논바닥 썰매타기

무등산 자락의 평촌은 도시보다 온도가 낮다. 겨울철 물을 담아논 논은 퐁퐁 얼어 평촌의 아이스링크가 된다. 썰매가 없어도, 스케이트 신발이 없어도 얼어 붙은 논바닥은 썰매를 타기에 좋다.



활동 방법

- 1) 살얼음이 아닌 퐁퐁 얼어있는 논을 찾는다.
- 2) 깨진 곳은 없는지, 잘 미끄러지는지 확인한다.
- 3) 혼자 타는 스케이트를 탄다.
- 4) 둘이나 셋이서 끌고, 밀며 썰매를 탄다.

활동 Tip

- 얼음 위에서 넘어질 때 다칠 수 있으니 안전에 주의한다.
- 서서 넘어지는 것보다 앉아서 넘어지는 것이 덜 다친다.
- 끄는 사람과 타는 사람을 서로 바꿔 탈 수 있도록 한다.



연결놀이

논 느낌 알기

우리의 주식인 쌀, 쌀이 심어지기 전, 혹은 모내기를 하며 논에 들어가 오감으로 느껴 본다. 논에 발이 빠지는 느낌을 나누고 움직이기 위한 요령도 찾는다.



논 생물 관찰하기

모를 심고 난 후 짧은 시간 보이는 풍년새우와 긴꼬리투구새우, 그리고 논에서 살고 있는 수서곤충들을 찾아 관찰한다.



논바닥 달리기 시합

가을걷이가 끝난 논에서 달리기 시합을 한다. 벼 밀동(벼 그루터기)에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 주의! 간혹 질퍽한 곳에서는 신발이 진흙 범벅이 되기도 한다.



마을 이름표

장소적 특징을 기억하면서 이정표를 만든다. 마을을 찾는 이들이 평촌의 매력에 빠질 수 있도록 마을을 안내하는 이정표를 마을 곳곳에 설치한다.



활동 방법

- 1) 마을 지도를 보며 모둠별로 구역을 나눈다.
- 2) 구역을 다니면서 이름표가 필요한 곳을 정한다.
- 3) 이름표를 만들 재료를 구한다.
- 4) 팀원들은 역할을 나눠서 이름표를 제작한다.
- 5) 방문객, 주민들이 볼 수 있게 눈에 띄는 곳에 각 이름표를 설치한다.

활동 Tip

- 이름표 재료로 글과 그림을 그릴 면이 넓은 나무와 유성매직을 준비한다.
- 나무를 자를 톱과 못, 망치, 철사 등을 준비한다.
- 손의 힘이 약한 아이들은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교사가 도구 사용을 돕는다.

연결놀이



종이비즈 팔찌 만들기

쓰레기로 버려지는 전단지를 이용하여 종이 비즈를 만든다. 한쪽 끝을 뾰족하게 길게 잘라 돌돌 만든다. 가운데 구멍이 생길 수 있게 꼬치용 꼬치를 중심으로 길게 자른 전단지를 감는다. 마지막으로 뾰족한 곳에 목공 풀을 묻혀 단단하게 굳힌다. 줄에 비즈를 하나씩 꿰어 매듭으로 마무리한다.



허수아비 만들기

작은 옷들을 모아 만든 허수아비는 마을 주민들의 논밭을 지켜준다. 톱질도 하고, 옷차림도 디자인하여 만든 허수아비를 주민들의 논과 밭에 설치한다.



도자기 빚기

내 고장의 무형 및 유형 문화재 중 오감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도자기에 대해서 안다.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이야기를 듣고 도자기를 체험하여 옛 문화를 이해하고 지키려는 마음을 갖는다.



활동 방법

- 1) 평촌 도예 공방을 방문하여 인사한다.
- 2) 도자기에 관한 이야기와 주의사항을 듣는다.
- 3) 흙의 질감을 느끼면서 원하는 형태의 접시 모양을 낸다.
- 4) 색칠하고 그늘에서 말린다.
- 5) 가마에서 도자기를 구워 완성한다.

활동 Tip

- 도자기가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려 한 달 후에 완성품을 받아 볼 수 있다.
- 물레를 이용해서 만들면 모양이 균일해진다.
- 높은 고열에서 오랜 시간 동안 도자기를 굽기 때문에 가마는 한 달에 한 번 불을 지핀다고 한다.

연결놀이



나뭇잎 책갈피 만들기

가을이 되면 다양한 색깔로 변하는 나뭇잎을 모아, 나만의 나뭇잎 책갈피를 만든다. 손코팅지와 가위, 나뭇잎만 있으면 가을을 담은 책갈피 완성!!



텀블러 가방 만들기

언제 어디서나 텀블러를 넣어서 다닐 수 있는 가방을 만든다. 나뭇잎 도장에 잉크를 묻혀 가방 원단에 찍고 유성 매직으로 색칠하여 꾸민다.



열매 먹고 맘맘

무등산 자락에서 자생하는 다양한 열매들을 계절별로 관찰하고 맛보면서 자연이 주는 혜택에 감사하고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배운다.



활동 방법

- 1) 계절별로 열리는 오디, 산딸기, 버찌, 보리수, 자두 등 평촌마을에서 자라는 열매들을 맛본다.
- 2) 열매의 맛과 생김새, 특징에 대해 서로 이야기한다.
- 3) 씨가 있는 열매는 입으로 누가누가 멀리 뱉는지 대결을 한다.
- 4) 가장 멀리 뱉는 친구에게 열매 하나를 선물로 준다.
- 5) 가지에 매달린 열매는 새와 동물, 곤충들의 밥이니 적은 양만 맛보도록 한다.

활동 Tip

- 계절별로 맛보는 열매들은 기억하기 쉽다.
- 버찌는 짓이겨서 손톱에 색칠하거나 돌이나 바닥에 글씨를 쓸수 있다.
- 산행을 하다 보면 뱀딸기와 산딸기가 흔하다.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 뱀딸기는 풀 종류이고 우리가 주로 먹는 딸기처럼 한 덩어리이다.
 - 산딸기는 나무 종류이고 한 알 한 알 석류처럼 알갱이들이 뭉쳐져 한 덩어리로 보인다.



연결놀이

자연 먹거리 만끽하기

계절에 따라 버찌, 수박, 옥수수를 따 먹고, 쌀로 만든 떡꼬치, 인절미, 도토리묵을 만드는 등 건강한 제철 자연 먹거리를 먹으면 편식도 줄어든다.



때죽나무 열매로 물고기 잡기

때죽나무 열매를 채취하여 돌로 짓이긴다. 그런 후 물고기가 살만한 웅덩이에 짓이긴 때죽나무 열매를 풀어 넣는다. 몇 분 뒤 물고기가 둥둥 떠오를 수 있다.



다람쥐 도토리 밥상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과 열매를 이용하여 산속 동물들을 위한 밥상을 만들어본다.



풀깨비가 부르는 풀피리

자연물을 가지고 맘껏 놀다 보면 스스로 장난감과 놀이를 만들 수 있어 생태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다.

자연물을 이용해 만든 소리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활동 방법

- 1) 민들레나 보리 등 줄기 속이 빈 식물들을 찾는다.
- 2) 줄기 끝을 앞니로 2~3번 잘근잘근 씹는다.
- 3) 불어보고 소리가 나면 성공

활동 Tip

- 잎이 넓은 식물은 반으로 접어서 손을 모은 사이에 팽팽하게 놓고 세게 불어본다.
- 주름조개풀은 팽팽하게 잡고 입술에 갖다 대고 분다.



연결놀이

나뭇잎 배 경주

들판의 풀로 소리가 나는 피리도 만들고 대나무 이파리나 달뿌리풀을 접고 찢어서 나뭇잎 배를 만든다. 무돌길 십터 옆 수변공원에서 물살 위를 가르는 배들 사이로 아이들 함성이 컷가를 즐겁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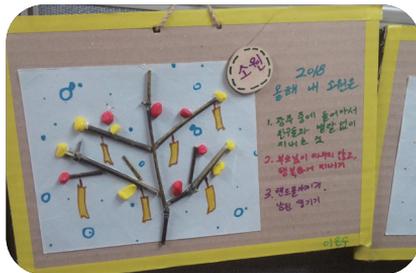
곤충 만들기

마을과 숲 곳곳에 떨어져 있는 풀잎과 낙엽, 잔가지, 열매들을 모아 곤충을 만든다. 곤충의 특징을 살려 만들고 완성된 곤충은 정자나 길목에 전시한다.



나뭇가지로 액자 만들기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와 종이 택배 상자를 이용하여 소원을 적은 소망 액자를 만든다. 종이상자의 테두리는 색깔 테이프로 깔끔하게 마감하고 종이 끈이나 마 끈으로 액자의 고리를 만들어 벽에 걸 수 있게 한다.



줍줍깅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쓰레기 무단투기의 원인을 찾아보고 마을에 쓰레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는 방법을 찾아본다.



활동 방법

- 1) 마을을 돌며 함부로 버려진 쓰레기들을 줍는다.
※ 준비물 : 집게, 쓰레기봉투
- 2) 모은 쓰레기들을 종류별로 분리하고 어떤 쓰레기가 왜 버려졌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본다.
- 3) 페트병 종류는 안에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물기를 빼고 모은다.
- 4) 비닐은 비닐끼리 캔은 캔끼리 모아서 분리배출함에 정리한다.

활동 Tip

- 정확한 분리배출을 통해 자원순환의 의미를 알게 한다.
- 비행분쇄 (비우고-행구고-분리하고-섞지 않는다)을 연습한다.



연결놀이

산가지 놀이

집에 돌아다니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모아 한쪽 끝을 뾰족하게 만들고 그 끝에 색 칠한다. 산가지를 마구 섞어서 흐트러놓고 순서대로 다른 가지를 건드리지 않고 한 개씩 빼낸다. 가지를 많이 모은 사람이 이긴다.



빈 페트병으로 물고기 잡기

페트병을 반으로 잘라 주둥이가 있는 쪽을 큰 입구에 겹쳐서 넣는다. 안쪽에 무거운 돌과 함께 미끼를 넣어 물속에 넣어둔다. 1~2시간 후 꺼내면 물고기들이 갇혀있다. 물고기를 관찰하고 놓아준다.



페트병 볼링

빈 페트병 10개를 모아 라벨을 떼 후 물을 넣어 볼링핀을 만들어 세운다. 팀별로 일반 축구공을 굴려 세워놓은 핀을 맞춰 쓰러뜨린다. 축구공 대신 버려진 전단지나, 신문을 뭉쳐서 공을 만들 수 있다.



옛날 옛날 평촌마을에

오랫동안 마을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다.



활동 방법

- 1) 마을 경로당이나 정자를 방문한다.
- 2) 어르신을 만나면 안부를 묻고 마을의 옛 이야기를 요청한다.
- 3) 옛날 이야기를 주의 깊게 잘 듣고 감사 인사를 전한다.
- 4) 동네 어르신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만의 옛이야기를 만들어 본다.

활동 Tip

- 주민들을 만나면 예의 바르게 인사를 잘하도록 지도한다.
- 그냥 듣기보다 노트에 적으면서 들었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동네 주민인 어르신들과 친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연결놀이

마을 역사 탐방

평촌마을 주변의 총장사, 소쇄원이나 환벽당 등 가사문학관을 방문하여 역사 이야기를 듣는다.



어르신들과 마음 나누기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책 읽어드리거나 음식을 대접한다.
마을 우물이나 노거수 나무에 얽혀 있는 이야기들을 조사해 본다.



마을 일손 돕기

옥수수 따기, 고구마 캐기, 감자 캐기, 모종 심기, 꽃씨 뿌리기 등 계절별로 마을에서 필요한 일손이 된다.



평촌에서는 모든 움직임이 놀이가 된다.



흙마당 놀이터
마을의 공터는 창의적인 놀이터이다.



자급자족
필요한 것을 내어주는 넉넉한 숲과 들, 마을



협동은 평촌마을 자연놀이에 꼭 필요한
활동



가마솥은 음식을 만드는 요술 램프
단, 문지르는 것 대신 불이 있어야 한다.



광주호 호수 생태원 - 너른 잔디밭과 새들의 지저귀미 있는 곳.



평촌마을과 이웃한 마을 탐방- 같은 점, 다른 점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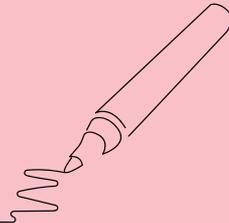
충효 분교 운동장- 평촌마을에서 평모들의 농로를 따라 걸어 갈 수 있다.





평촌마을 자연놀이 참여자들이 만든

활동의 기록들



모듬 규칙 정하기

- 안전하게 놀기 위한

우리 모듬 규칙은...?

1. 동네 어르신들 보면 인사하기.
2. 다른 모듬과 충돌하지 않기!
3. 동생들 챙기기. (46)
4. 모듬 활동 시 협동하기!
5. 전기 제품 사용 금지.
(휴대폰, 닌텐도, 게임기 등등)
6. 자유허간에 혼자 마을 돌아다니지 않기
7. 고운말 쓰기

- 안전하게 놀기 위한

우리 모둠 규칙은...?

- 개인활동 하지 않기
- 전자제품 사용하지 않기
- 위험한 행동 하지 않기 (핸드폰, 닌텐도 등)
- 자연 환경 훼손하지 않기 (우단특기 금지)
- 사이좋게 지내기
- 반야오 소리 안듣기(아래→위)
(목X)

‘ 모둠 이름☆’

* 반디

허수아비 이름

반디

반디 이름으로 놀러 왔고
반디처럼 생리계를 보호하고
우리도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 되자!

김치전을 만드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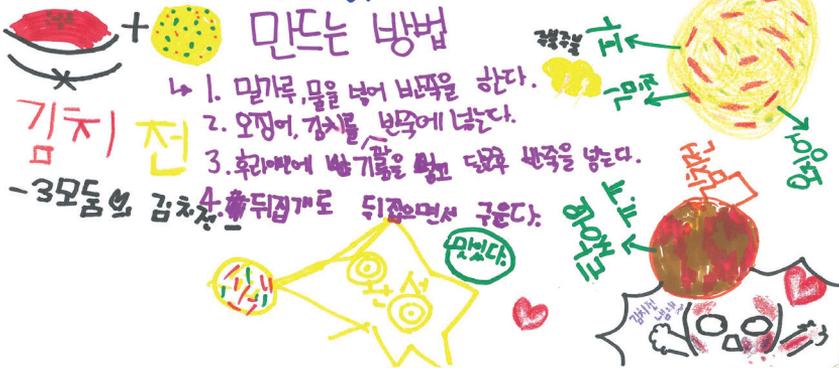
재료: 김치, 식용유, 계란, 밀, 밀가루, 파, 우유(물), 그릇, 후라이팬. 

주의: ① 불 쪼임 ② 식용유 튀기는 상황 주의 ③ 뜨거운 후라이팬에 손대기 않기. ④ 밀가루로 장난치지 않기.

만든 방법: 1. 밀가루에 계란이랑 물, 김치 파 넣고 섞기.  2. 후라이 팬에 기름 두르기. (팬에 기름 두르기)  3. 후라이 팬에 반죽을 얹는다.  4. 한 면이 다 익으면 전을 뒤집는다.  5. 그릇에 담아 먹는다. 

김치전 만들기 -

재료 ⇒ 김치, 밀가루, 오징어, 파, 기름, 물, 계란, 식염
 도구 ⇒ 후라이팬, 가스레인지, 프라이팬 뒤집기, 그릇



나무 관찰하기

1. 이름: 자두 나무
2. 나무잎이 광택이 난다.
3. 잎은 여사나 길쭉하다.
4. 잎에 구멍이 많이 있다.
5. 잎 가장자리에 작은 톱니모양이 있다.
★ 별칭: 최자두
6. 엄지손톱만한 열매가 있다.
7. 가지가 거칠거칠하다.
8. 크기: 선생님의 선생님키의 그 배
9. 가지가 얇고 까칠까칠하다.
10. 잔가지가 많다.



- 목. 1. 나무이름: 은행나무
2. 일자로 무늬가 있다.
 3. 가로수에 길가에 자주 있다.
 4. 구멍이 많이 있다.
 5. 파개비 모양이다.
 6. 분재 모양이다.
 7. 꽃잎이 나무에 4~5 셋개씩 붙어 있다.
 8. 나무잎을 가로로 찢는 것보다 세로로 찢는 게 더 쉽다.
 9. 이끼가 많이 끼어 있다.
 10. 주변에 연보라색 꽃이 있다.
 11. 나무의 길이 선생님의 키의 4배
- ★비름덩; 분재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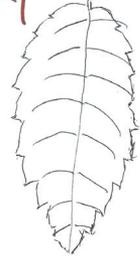


나무

- 키: 선생님 키 x 6 배 정도 
- 둘레: 3명 팔 길이 (산, 우측, 우전)
 특루징 나무잎, 한마디에 나뭇잎 2마디
 삼각
 8. 경이 울퉁불퉁
 9. 줄기 바늘이 많이 있음
 10. 비어있음
 6. 뒷면에 진한 물이 많이 있음
 7. 줄기가 보라색이다.
-  탁탁
- 이름: 배나무
 5. 별명: 호나무, 평균티나무, 진딧물나무

- 이름: 감나무
 - 기둥이 굵아졌다.
 - 잎이 크고 넓적하다.
 - 앞면이 광택이 있고 부드럽다.
 - 뒷면은 거칠다.
 - 꽃이 치마 같다 
 -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다.
 - 광택은 있지만 향수는 안 된다.
 - 알파라기 얇다.
 - 줄기가 초록색이고, 그 반이 갈색으로 딱딱하다.
- 

수호나무 특징 10 가지



1. 이끼 많.
2. 나무 껍질에 빨간 진드기가 산다.
3. 벌레가 많다.
4. 진드기는 야광색이다.
5. 나무가 굵다.
6. ^{산다.} 나무 주변에 있는 풀에 검은색 무당벌레가
7. 나무가 늙는다.
늘
8. 공벌레는 수염종 같이 생겼다.
9. 주변에 풀이 많다.
10. 가지가 ^{나뭇가지.} 많다. ♥
11. 앞부분 이따리는 까맣다. ♥





평촌마을 열두 달 자연놀이 

평촌에서의 하루일정



길

프로그램 배경과 취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되는 질문의 시작은 내가 살고 있는 위치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자연 속에서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연 속에서 헤매지 않고 길을 찾는 방법을 배웁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의 협력을 통해, 자연이 가르쳐주는 길을 따라 나만의 길을 찾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탐구하고 협동하며 목표했던 곳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습니다.

처음에는 나침반을 활용해 길을 찾지만, 주변 사물과 자연이 가르쳐주는 길을, 그리고 내 몸이 알려주는 길을 찾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간에 대해 인식을 높이고 자연에서 길을 잃지 않고 놀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돕습니다.

♣ 준비물

나침반, 스케치북, 골판지, 색종이, 비빔밥 재료, 눈가리개용 천, 프라이팬, 버너 등

♣ 일정표

시간	프로그램명	내용
10:00~10:20	자연 이름 짓기	동사와 명사로 자연 이름을 짓고 명찰을 만들어요.
10:20~11:20	마을 속 곳곳에 보물을 숨겨라	모둠별로 나침반을 이용해 지도를 그리고 마을 속에 비빔밥 재료가 적힌 쪽지를 숨겨요
11:20~12:20	숨겨둔 보물을 찾아라	모둠별로 그린 지도를 바꾸어서 비빔밥 재료 쪽지를 찾아요.
12:20~14:00	우리는 한술밥 식구	함께 비빔밥을 만들어 먹어요. (동서남북 놀이)
14:00~15:30	오감을 이용한 방향 찾기	같은 길도 눈을 감으면 느낌이 달라져요. 바람과 냄새, 발의 느낌에 따라 방향을 찾아봐요.
15:30~16:00	화전 만들기	진달래꽃, 쑥 등 먹을 수 있는 꽃과 풀로 화전을 만들어요.
16:00~16:30	오늘 하루 어땠나요?	각자의 느낌을 스케치북에 정리하여 이야기해요.

♣ 프로그램 세부 내용

자연 이름 짓기

- ☞ 목표 : 동사와 명사를 활용해 각자의 이름을 지으며 자연에 흥미를 갖는다.
- ☞ 내용 : 다양한 자연(명사)과 그 움직임을 표현하는 동사를 이용해 자신의 이름을 짓는다.
- ☞ 준비물 : 나무 명찰, 매직

마을 속 곳곳에 보물을 숨겨라

- ☞ 목표 : 나침판과 지도의 사용법은 익히고 마을의 자연환경을 탐색한다.
- ☞ 내용 : 4개 모듬별 나침판 2개, 지도 1개를 주고, 각 모듬별로 목적지를 찾아가도록 한다. 목적지를 찾아가는 길을 보물지도에 담고, 지도에 보물을 숨겨둔 지점을 표시한다.
- ※ 1모듬(담안마을) 기동택, 2모듬(동림 마을) 개선사, 3모듬(동림 마을) 우물, 4모듬(우성 마을) 옛날 우물
- ☞ 준비물 : 모듬별 보물지도 그림 종이(7인 1개), 연필, 지우개, 매직, 보물이 적힌 색종이
- 출발 지점 : 평촌 마을회관
- 보물지도 그리는 팁
- : 거리 표시 - 몇 걸음으로 표시
- : 표시 방식 - 그림으로 그리거나 말로 설명해도 됨.
- 자세히 표현하며 상대방이 보물을 100% 찾을 수 있도록 지도를 그린 모듬에게 선물 지급(달걀 7개)
- : 방향 표시 - 동서남북으로 표시(좌우 표시 금지), 꽃나무 혹은 자연물을 이용해 방향 표시

숨겨둔 보물을 찾아라

- ☞ 목표 : 다른 모듬이 그린 보물지도와 보고 보물을 찾으며 마을의 자연환경을 탐색한다.
- ☞ 내용 :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된 보물지도와 다른 모듬에게 주고 보물을 찾도록 한다.
- ※ 1모듬 ↔ 2모듬, 3모듬 ↔ 4모듬 지도를 바꾸어서 찾기

우리는 한술밥 식구

- ☞ 목표 : 다양한 음식 재료를 편식하지 않고 먹는다.
- ☞ 내용 : 찾은 보물(음식재료)을 이용해 비빔밥을 만든다.
- ☞ 준비물 : 밥, 나물 3개, 김치, 참기름, 고추장, 고기볶음
- ※ 반찬 보물을 찾지 못한 친구들에게 단순한 놀이를 진행하고 선물로 반찬을 준다.

오감을 이용한 방향 찾기

- ☞ 목표 : 보자기를 이용해 자신의 눈을 가리고 모듬별로 안내된 설명글을 따라 길을 찾아가는다.
- ☞ 내용 : 2인 1조, 1인은 눈을 가리고 나머지 1인은 옆에서 보조하며 보물 지도에 안내된 방향을 찾아 걸어간다.
- ☞ 준비물 : 보자기 1인 1개씩
- ※ 1모듬 ↔ 3모듬, 2모듬 ↔ 4모듬 지도 교환

화전 만들기

- 목표 : 오감으로 방향을 찾으며 채취해 온 먹을 수 있는 풀꽃을 가지고 화전을 만든다.
- 내용 : 밀가루와 찹쌀가루의 차이를 맛으로 파악한다. 다양한 풀꽃의 색깔을 이용한 화전 꾸미기를 한다.
- 준비물 : 프라이팬, 기름, 부스터, 찹쌀가루, 밀가루

불

프로그램 배경과 취지

불은 물, 공기, 흙과 더불어 우주의 기본 요소인 4원소로 일컬어집니다.

본래 신만이 지닐 수 있도록 제우스가 감추어 두었던 불을 프로메테우스가 훔쳐다 줌으로써 나약한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갈 수 있었다고 전해지듯이 불은 인류의 혁명을 가져왔으며 우리의 삶(의식주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에너지 자원입니다.

활동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퀴즈 대결을 통해 불에 대해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후 파이어 스틸, 돋보기 등의 도구와 나뭇가지, 솔방울, 풀 등의 다양한 불쏘시개로 직접 불 피우기에 도전하고 스스로 피워 낸 불을 이용해 음식을 만듭니다. 또한 태양빛을 이용한 불 그림 그리기를 통해 햇빛 에너지의 활용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 준비물

파이어스틸, 돋보기, 빈 페트병, 활대(끈), 검은 도화지, 성냥, 신문지, 유성펜, 소이 캔들 만들기 용품, 로켓 스토브 등

♣ 일정표

시간	프로그램명	내용
10:00~10:20	인사 및 활동 안내	참가자 인사 및 오늘의 활동 안내
10:20~11:00	대결, 불을 알아보자!	주어진 질문에 응답하면서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과 자신이 알고 있던 것을 활용하여 문제를 만들고 다른 모둠과 교환하여 풀어 봐요.
11:00~12:00	도전, 불을 피워라!	소방 안전 교육 후 모둠별로 선택한 도구와 주변 재료를 활용하여 불 피워요.
12:00~14:00	내가 피운 불로 밥 짓기	모둠별로 직접 피운 불을 모아 밥을 지어 봐요.
14:00~15:00	불을 내 맘대로! - 태양빛으로 불 그림 그리기 - 아라마 소이 캔들 만들기	종이에 검은색 펜으로 그림을 그리고, 돋보기를 이용하여 불 그림을 그려요. 빈 참치캔을 이용하여 소이 캔들을 만들어요.
15:00~16:00	로켓 스토브로 라면 끓이기	열효율이 높은 로켓 스토브를 이용하여 잔가지(나무젓가락) 만으로 라면 끓여 먹어요.
16:00~16:30	오늘 하루 어땠나요?	각자의 느낌을 스케치북에 정리하며 이야기해요.

♣ 프로그램 세부 내용

대결, 불을 알아보자!

- ☞ 목표 : 불에 대한 생각하면서 스스로 배운 것을 정리하며 삶의 지혜를 익힌다.
- ☞ 내용 : 불 피우기 위해 모둠별로 주어진 질문을 해결하며 스스로 알게 된 점이나 평소 알고 있던 지식을 정리하여 스케치북에 문제를 만든다. 다른 모둠과 문제를 교환하여 풀어 본다.
- ☞ 준비물 : 스케치북, 유성펜

도전, 불을 피워라!

- ☞ 목표 : 불을 다룰 때 필요한 것, 주의할 점을 확인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불을 피운다.
- ☞ 내용 : 불을 피우기 전에 안전교육 실시. 모둠별 점수에 따라 불을 만들 도구를 선택 어떤 방법으로, 마을의 어느 장소에서, 어떤 불쏘시개를 구하여 불을 피울지 계획하고 불을 피운다.
- ☞ 준비물 : 파이어 스틸, 돋보기, 지퍼팩(페트병), 나무+활대(끈), 검은 도화지 등

내가 피운 불로 밥 짓기

- ☞ 목표 : 모둠별로 직접 피운 불을 이용하여 점심밥을 짓는다.
- ☞ 내용 : 모둠별로 벽돌이나 돌로 화덕을 만들어 밥을 직접 지어 보도록 한다.
- ☞ 준비물 : 냄비, 벽돌(돌), 쌀

불을 내 맘대로!

- 활동 1) 태양빛으로 불 그림 그리기
- ☞ 목표 : 태양빛을 모으고 이용한다.
 - ☞ 내용 : 도화지에 검은 펜으로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돋보기로 빛을 모아 검은 펜 자국을 태워 그림을 그린다.
 - ☞ 준비물 : 돋보기, 도화지, 검은 펜 등

불을 내 맘대로!

- 활동 2) 아로마 소이 캔들 만들기
- ☞ 목표 :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소이 캔들을 만들며 자원 재사용과 재활용의 차이를 알아본다.
 - ☞ 내용 : 재활용품(참치 캔)을 이용하여 아로마 소이 캔들을 만들어 생활 속에서 활용해 본다.
 - ☞ 준비물 : 빈 참치 캔, 소이왁스, 심지, 심지 탭, 중당 그릇(냄비), 버너, 나뭇가지, 아로마 오일 등

로켓 스토브로 라면 끓이기

- ☞ 목표 : 로켓 스토브를 활용하여 라면을 끓여 봄으로써 열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정기술을 체험한다.
- ☞ 내용 : 로켓 스토브를 이용하여 잔가지(나무젓가락)로 라면을 끓여 나눠 먹는다. 열효율을 높일 수 있는 구조와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 준비물 : 로켓 스토브, 일회용 젓가락, 잔가지, 냄비, 라면

물

프로그램 배경과 취지

물이 있기에 모든 생명들이 탄생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은 어떻게 오염되지는, 물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합니다. 먹는 물이 부족한 나라와 물 전쟁, 물 갈등으로 고통받은 지역의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무등산 계곡에서 시작한 물줄기가 평촌마을을 지납니다. 징검다리가 놓여진 풍암천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물놀이 방법과 위험하지 않도록 활동규칙을 정합니다. 물놀이를 할 때 일어나는 위험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합니다.

♣ 준비물

루페, 돋보기, 때죽열매, 스케치북, 보드마카, 폐식용유, 비누틀, 저울, 양동이, 도감

♣ 일정표

시간	프로그램명	내용
10:00~10:20	인사 및 활동안내	참가자 인사 및 오늘의 활동 안내
10:20~11:00	대결, 물을 알아보자!	모둠별로 물에 관한 질문을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점, 자신이 알고 있던 것을 활용하여 문제를 만들어 다른 모둠과 퀴즈 대결을 해요.
11:00~12:00	물에서 놀기	물놀이 안전교육 후 모둠별로 도감을 이용하여 물속 생물들을 찾아보고 관찰해요. 재미있는 물놀이와 함께 때죽나무를 짓이겨 물고기를 잡아요.
12:00~14:00	주먹밥 만들기	모둠별로 준비된 재료로 자신만의 주먹밥을 만들어 서로 나눠 먹어요.
14:00~14:30	나는야 퀴즈대왕	물, 물놀이, 물속 생물들과 관련된 퀴즈를 만들어요.
14:30~15:00	옥수수 수확	옥수수가 자란 밭에서 잘 여문 옥수수를 고르는 방법, 수확하는 방법을 재배농민에게 배워요.
15:00~16:00	비누 만들기	준비해 간 폐식용유를 이용하여 비누를 만들어요.
16:00~16:30	오늘 하루 어땠나요?	각자의 느낌을 스케치북에 정리하여 이야기해요.

♣ 프로그램 세부 내용

대결, 물을 알아보자!

- ☞ 목표 : 물에 대한 질문을 해결하면서 스스로 알고 깨우친 것을 정리한다.
- ☞ 내용 : 물에 관해 모둠별로 주어진 질문을 해결하며 스스로 알게 된 점이나 평소 알고 있던 지식을 정리하여 모둠별 스케치북에 문제를 만든다(5문제 : 환경적인 것, 난센스 포함). 다른 모둠과 문제를 교환하여 풀어 보도록 한다.
- ☞ 준비물 : 스케치북, 유성펜

물에서 놀아보기

- ☞ 목표 : 물에서의 안전행동요령을 숙지하고 물속 생물들을 찾는다.
- ☞ 내용 : 물속에서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모둠별로 물속 생물들을 찾아보고, 도감과 돋보기를 이용하여 관찰한다.
때죽나무 열매나 잎을 짓이겨서 물속에 넣어 물고기를 잡는다.
각종 재미있는 물놀이를 한다.
- ☞ 준비물 : 때죽나무 열매, 돋보기, 루페, 하얀접시, 수조 등

주먹밥 만들기

- ☞ 목표 : 주먹밥을 만들어 서로 나눠 먹으며 돈독한 관계를 형성한다.
- ☞ 내용 : 모둠별로 준비된 재료로 취향별 나만의 주먹밥을 만들어 서로 나눠 먹는다.
- ☞ 준비물 : 갓 지은 밥, 양푼, 김가루, 멸치볶음 등

나는야, 퀴즈 대왕!

- ☞ 목표 : 물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지식들을 공유한다.
- ☞ 내용 : 모둠별로 만들었던 퀴즈들을 다른 모둠들에게 발표하여 정답을 맞힌 팀에게 점수를 준다.
많은 점수를 딴 팀은 가마 태워주거나 행가래를 해준다.
- ☞ 준비물 : 스케치북, 매직

옥수수 수확

- ☞ 목표 :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제철 음식을 알고 직접 수확하여 먹는 재미를 느낀다.
- ☞ 내용 : 마을 농민이 심어 놓은 옥수수를 1인 2개씩 따서 썰 먹는다.
- ☞ 준비물 : 양동이, 옥수수밭

비누 만들기

- ☞ 목표 : 물을 오염시키는 폐식용유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안다.
- ☞ 내용 : 폐식용유를 모으고, 가성소다를 이용해 우유팩에 굳혀 비누를 완성한다.
- ☞ 준비물 : 양동이 4개, 저울, 막대기, 폐식용유, 우유팩 등

물속생물

프로그램 배경과 취지

물놀이 장소였던 하천의 재발견 시간. 하천은 생명이 태어나고 길러지는 공간입니다. 많은 생명들이 사는 공간임을 알고 물 속에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습니다.

매벌레 시절이나 일생의 전부를 물에서 사는 수서 곤충들은 돌 밑이나 하천의 바닥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작은 생물들을 관찰하기 위해 루페를 이용하면, 각각 다른 크기와 모양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촌마을의 하천에는 다슬기가 쉽게 발견됩니다. 돌 사이 사이를 헤엄쳐 다니는 민물고기들도 다양합니다. 눈으로 발견하고, 도감에서 물 속 생물을 찾습니다. 도감에서 찾은 생물들이 어떤 환경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설명글을 꼼꼼히 보고 친구들과 정보를 나눕니다.

♣ 준비물

루페, 수조, 스케치북, 보드마카, 뜰채, 그물, 밥그릇, 양동이, 도감, 붓, 곤충 만들기 세트 등

♣ 일정표

시간	프로그램명	내용
10:00~10:20	인사 및 활동안내	참가자 인사 및 오늘의 활동 안내
10:20~11:00	수서생물을 알자	수서곤충과 물고기, 물풀 등 물 속에 사는 동식물을 루페로 관찰해요.
11:00~12:00	수서곤충 만들기	안전 교육 후 도감을 살펴보며 물속으로 들어가 생물들을 찾아보고 관찰하고 골판지에 나뭇가지, 나뭇잎 등의 자연물을 이용해 수서곤충을 표현해 봐요.
12:00~13:30	주먹밥 만들어 먹기	주먹밥을 만들어 서로 나눠 먹으며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요.
13:30~15:00	양동이 채우기	밥그릇에 물을 담아 모듬별로 양동이를 채우는 놀이를 해요.
15:00~15:20	여름철 먹거리	늦여름철 음식인 무등산수박을 먹어요.
15:20~16:00	줍줍깅	개울가 주변의 쓰레기들을 주우며 환경보호를 실천해요.
16:00~16:30	오늘 하루 어땠나요?	각자의 느낌을 스케치북에 정리하여 이야기해요.

♣ 프로그램 세부 내용

수서생물을 알자

- ☞ 목표 : 물속에 사는 생물에 대해 알아보고 생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
- ☞ 내용 : 수서곤충과 물고기, 물풀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미리 채집된 수서생물을 루페로 관찰한다. 도감과 비교해 보면서 생김새와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안전교육 실시 후 직접 물에 들어가 생물들을 찾아 관찰한다.
 - ※ 물에 들어가기 전에 안전 수칙 숙지하기
 - ※ 정자에 가림막을 준비하여 옷을 갈아입는다.
- ☞ 준비물 : 루페, 도감, 수조, 붓

수서곤충 만들기

- ☞ 목표 : 내가 좋아하는 곤충을 자연물을 이용해 만든다.
- ☞ 내용 : 준비된 골판지에 주변에서 수집한 자연물(들, 나뭇가지, 나뭇잎, 열매 등)을 이용하여 내가 좋아하는 혹은 내가 관찰한 수서곤충을 표현해 본다.
- ☞ 준비물 : 골판지, 자연물, 목공풀, 유성펜

양동이 채우기

- ☞ 목표 : 조그마한 그릇으로 커다란 양동이를 채우며 작은 물의 소중함을 안다.
- ☞ 내용 : 모듬원이 릴레이로 밥그릇에 물을 담아 버려지는 물이 없도록 모듬별 양동이에 붓는다. 정해진 시간 동안 가장 많은 물을 옮긴 모듬이 승리한다.
- ☞ 준비물 : 양동이, 밥그릇, 물

여름철 먹거리

- ☞ 목표 :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제철 음식의 종류와 중요성을 알고 자연에 고마운 마음을 갖는다.
- ☞ 내용 : 여름철에 먹을 수 있는 제철 음식(옥수수, 수박, 참외 등)을 알아보고 제철 음식을 먹으면 좋은 점을 이야기 나눈다.
- ☞ 준비물 : 수박 2통

줍줍깅

- ☞ 목표 : 주변의 쓰레기를 주우며 평촌을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임을 안다.
- ☞ 내용 : 평촌 마을의 쓰레기들을 주워 분류한다. 어떤 것들이 버려지는지, 왜, 누가 버리는지 이야기 한다.
- ☞ 준비물 : 종량제 봉투, 집게

숲

프로그램 배경과 취지

우리는 나무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을까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의 이야기처럼 나무와 숲은 동식물들의 삶의 터전이며 깨끗한 공기와 휴식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먹거리를 제공하고 산사태나 홍수를 막아주는 등 우리에게 이로운 줄을 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숲을 지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숲” 프로그램은 평촌마을의 나무와 숲을 찾아 「나만의 마을 숲 지도」 만들기로 시작합니다. 숲에서는 새가 지저귀는 소리, 풀 냄새, 나무 냄새, 바람이 간지럽히는 느낌 등 오감으로 자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숲속을 돌아다니면 눈과 마음이 편안해지며 아이들의 생태 감수성과 공간지각 능력은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입니다.

♣ 준비물

루페, 돋보기, 스케치북, 유성매직, 휴대용 마이크, 나물비빔밥 재료(나물, 고추장, 달걀, 참기름 등), 끈(제기 만들 재료), 라면, 로켓 스토브, 냄비, 그릇

♣ 일정표

시간	프로그램명	내용
10:00~10:20	인사 및 활동 안내	참가자 인사 및 오늘의 활동 안내
10:20~11:30	마을의 나무 탐방	마을 지도를 보며 조별로 탐방 지역을 나누어 마을의 나무를 찾고 관찰해요.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모둠에게 제시할 문제를 만들어요.
11:30~12:30	나물 비빔밥 만들기	모둠별로 다양한 재료를 넣어 나물 비빔밥을 만들고 서로 나누어 먹어요.
12:30~14:00	자연물 놀이	간단히 할 수 있는 자연물 놀이를 해봐요. - 질경이 제기차기, 비석치기, 긴 줄넘기 등
14:00~14:30	숲지기 퀴즈대회	오전에 모둠별로 만든 문제를 이용해 모둠별 퀴즈대회를 해요. - 모둠별 점수에 따라 부재료(달걀 등) 제공
14:30~15:30	적정기술로 라면 끓이기	모둠별로 로켓 스토브를 이용해 직접 라면을 끓여 먹어요.
15:30~16:00	오늘 하루 어땠나요?	각자의 느낌을 스케치북에 정리하여 이야기해요.

♣ 프로그램 세부 내용

마을의 나무와 탐방

- ☞ 목표 : 평촌마을 곳곳을 탐색하며 마을에 사는 나무를 찾아 생김새와 특징을 담은 「나만의 마을 숲 지도」를 만든다.
 - ☞ 내용 : 4개 모둠으로 나누어 마을을 답사하며 모둠별 나무를 정해 관찰한다.
최소 4그루 이상의 서로 다른 나무를 선정, 자세히 관찰하고 특징을 10가지 이상 찾는다.
관찰한 나무를 마을 지도에 표시하고 글이나 그림 등으로 표현한다.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나무에 대한 문제를 만든다.
-

나물 비빔밥 만들기

- ☞ 목표 : 모듬원과 함께 숲이 주는 먹거리로 나물 비빔밥을 만든다.
 - ☞ 내용 : 모듬별 획득한 재료로 입 맛에 맞는 비빔밥을 만들어 서로 나누어 먹으며 자연이 주는 먹거리의 고마움을 느낀다.
-

자연물 놀이

- ☞ 목표 : 숲에서 찾은 자연물을 이용해 친구들과 논다.
 - ☞ 내용 : 자연물을 이용하여 모듬별로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를 생각하고 즐기면서 모듬별 관계를 돈독히 한다.
- 비석 치기, 공기놀이, 자치기, 질경이 제기차기, 긴 줄넘기 등
-

숲지기 퀴즈대회

- ☞ 목표 : 숲, 나무에 대해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내고 맞히면서 숲과 나무를 즐겁게 배운다.
 - ☞ 내용 : 오전에 나무 관찰을 하면서 모듬별로 낸 문제를 돌아가면서 내고 맞히면서 나무에 대한 배움의 시간을 갖는다. 모듬별 점수를 매기고 간식 획득권 제공한다.
-





별간 후기



참 이상한 조합들이다. 소중한 일요일을 아이들의 즐거움을 위해 쓰면서 즐거워하는 선생님들.

대학 시절부터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 지금까지 20년 넘게 함께 하는 효선 선생님, 들떠있는 듯한 목소리지만 환경에는 여지가 없는 민정 선생님, 허당투성인데 곁에 있으면 즐거운 에너지가 넘치는 예서 선생님, 빈틈이 있어 보이는데 어디 서나 야무진 경희 선생님, 착하디 착한 동구 선생님, 늘 넓은 마음인 효경 선생님, 열혈청년 인애 선생님, 모두가 참 좋다

자연나들이를 평촌에서 진행한 것이 넘 고맙다.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어울리고 마을에 스며든 광주환경연합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럽다. 아이들에게 평촌이 외갓집같은 마을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 공은주

책을 만들기 위해 오래된 핸드폰의 사진첩을 보며 추억에 잠기곤 했다. 아이들과 함께 한 매 순간이 즐거웠고 기억에 남지만 추운 겨울 아이들과 함께 화덕에 밥을 직접 지어 먹고, 뽕뽕 얼어있는 논바닥에서 썰매를 타며 신나게 놀았던 활동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는 다 같이 모여 음식을 만들어 먹는 활동들과 몸을 맞닿으며 함께하는 놀이에 제한이 있어 매우 아쉬웠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무등산국립공원 평촌 명품마을의 '무돌길 쉼터'에 꼭 들러보시길 바란다.

●●● 김동구

'평촌'하면 떠오르는 것은 아이들의 웃음이다. 평촌의 자연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며 나뭇잎 한 장을 물에 띄우고도 깔깔대는 아이들. 충분히 놀 시간을 줘는데도 매번 자유 시간을 달라는 아이들. 핸드폰이 없어도 포래들과 어울려 스스로 놀 줄 아는 아이들이 대견스러워 나 역시 따라 웃게 된다.

처음 평촌 나들이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생각했던 것은 '어른인 우리가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 스스로 자연에서 뛰어놀며 자연을 사랑하게 하

자는 것이었다. 나는 어릴 적 시골에서 다슬기 잡고, 산딸기 따 먹으며 놀았던 때가 참 행복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역시 그런 경험을 하며 자랐으면 한다.

●●● 배효선

평촌에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뛰어놀기 위해 전래놀이, 자연놀이, 밭줄놀이, 숲해설을 배웠다. 아이들에게 배운 것들을 다시 전달하며, 자연과 아이들을 이었다. 배움의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 숲길을 걸으며 숲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면 나뭇잎 한 장을 이리 보고 저리 보며 무언가를 발견할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는 아이들, 함께 행복하고 즐거웠다.

●●● 신민정

‘우리 책 만들어 볼래요? 재미있고 상상력 넘쳤던 프로그램을 책으로 엮어 사람들과 함께 나눠봐요’라며 시작했다. 그리고 5년 동안 진행했던 많은 프로그램들을 재구성하고, 수 천장의 사진들을 다시 보았다. ‘진짜 재미있었는데’, ‘우리가 이것도 했구나’하며 책자 발간 회의는 즐거운 추억 나눔 회의가 되었다.

그 즐거움을 책 속에 다 담기에는 우리의 책만들기 실력이 부족했다. 그러나 많은 마음들이 담긴 ‘평촌마을 열두 달 자연놀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바란다.

●●● 이경희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곳 평촌!! 무등산 자락의 푸른 정기 속에서 자연의 본성을 지닌 본래의 모습으로 뛰어놀던 아이들이 한 뼘씩 자랐다. 자연에 대한 예의와 배려, 양보, 나눔을 할 줄 아는 생태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들로 성장하였다. 평촌의 놀이들이 추억이 되어 아이들 기억 저편에서 꿈틀 댈 것이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마을 주민들께 감사하고 잘 놀아준 아이들과 평촌마을로 아이들을 보내 주신 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임예서

포항호수마을
여름달과잔월

